

연중 제 32주일 2007년 11월 11일 (다해)

강론 ...

### 부활에 대한 확신과 희망



박기준 신부  
(주현동 성당 주임)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오고 또한 맞이해야 한다. 사람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과연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새로운 삶이 이어지는가? 참으로 궁금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늘 복음에서 사두가이들은 자기들의 평소 주장대로 사람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고 부활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의견을 묻는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명쾌하게도 부활 후의 하느님 나라에서의 삶은 이 세상의 삶과 그 본질을 달리 한다는 말씀이었다. 즉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들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 받는 이들은 더 이상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같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과 완전한 평화를 누릴 뿐이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에서는 유대인을 박해했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왕 치하의 유대인들이 용감하게 부활에 대한 신앙으로 율법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한 어머니와 일곱 형제들은 모두 한사람씩 왕 앞에서 온갖 육체적인 형벌을 당하면서도 죽 혀를 잘리우고 손발이 잘려지고 온갖 고문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는 아들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도 결국엔 그러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가게 될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의연하게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고 죽음을 초연히 받아들일 수 있었던 용기는 바로 부활에 대한 강렬한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모든 순교자들은 다 부활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

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순교자들의 숫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진출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박해와 순교는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현세의 부귀영화와 사후의 영원한 행복을 놓고 어느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척도이다. 현세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후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현세의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욕신의 쾌락에 대한 허황된 욕망을 버리고 사는지가 믿음의 척도라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현세에서의 찰나적인 행복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물질에 대한 지나친 탐욕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차단되고, 육체의 허황된 욕망 때문에 윤리 도덕이 무너지면 그것은 분명 부활을 거부하는 매우 어리석은 삶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부활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갖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숲머리 생각



부활에 대한 확신  
영원한 행복



# 복된 사람



최 용준 신부  
뉴욕 S.I 본당 주임

“복되여라. 아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시편 1,2)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의 영광도 보고 몰락도 보았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 수많은 영웅과 현인들이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허망한 인생들이었다. 위대한 별다윗도 비탄 속에 눈



을 감았고 현명했던 솔로몬도 지혜를 잃고 어둠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예언자들도 박해와 핍박으로 슬픈 운명을 벗지 못하였다.

세상에 복도 많고 복 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복 있는 곳은 모른다. 많은 어리석은 이들이 세상 것을 찾다가 망했고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믿다가 낭패를 보았다. 세상이 복을 주고 보물을 안길 듯 하지만 거두고 보면 모두가 덩불이다. 다윗의 영화도 인간의 영화에 지나지 않고 솔로몬의 지혜도 사람의 그것에 불과했다.

복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복을 얻어 기뻐함인가. 그러나 복은 물건이 아니다. 선물이라면 받아야 하고 보물이라면 찾아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복은 마음에 있고 행실에 있다. 사람들은 복을 얻자고 악행을 하고 죄를 짓지만 그럴수록 복은 멀리만 있다. 사람들의 행색이 가관이다. 복을 찾는 모습들

이 놀랍다. 그러나 세상 것을 놓아버린 시편 저자의 눈에는 모든 것이 헛되게만 보인다.

복은 하늘에서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복은 세상적 영화가 아니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목마른 영혼에게 주어지는 샘물이며 양식일 뿐이다. 허영과 욕심에 취한 마음에는 복으로 보일리 없다. 하찮다고 눈길도 주지 않으니 세상에서는 천대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복이다.

굳이 복이라 한다면 그것은 진리 밖에 없다. 인생에 길을 주고 삶의 법도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이를 아는 자는 마음을 가다듬는다. 그는 세상을 개의치 않으며 악인들과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의 낙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있어 그 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사람이 무엇이나 되는 줄 알지만 그분께 숨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세상에 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복된 삶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이라야 진정 복된 자다. 시편은 바로 그런 자를 위한 것이다. 그림 : 박종구 (바드리시오)

## 쓰레기도 돈이다

지난 10월 17일엔 환경사목 회원들이 전주시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장을 탐방하였다. 이곳은 전주시의 주택지에서 나오는 것만 수거하는 곳이었다. 주택지역은 아파트 지역보다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는 환경이 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편이라 한다. 그래서 직원들이 쓰레기 더미에서 재활용 쓰레기만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캔, 유리병, 플라스틱류 등을 재활용품으로 분리해서 버릴 때는 속에 이물질이 없애고 버려야 한다. 그리고 라면봉지나 과자봉지 등 비닐류는 리사이클 표시가 되어있는 것만 따로 모아서 분리 배출하면 된다. 스티로폼은 깨끗한 것만 재활용되고 건축 폐기물 스티로폼은 못이 박혀 있거나 시



멘트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또한 사기 조각이나 도자기는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다. 유리 녹이는데 사기조각이 들어가면 녹인 물을 다 버려야 한단다. 그만큼 비용이 낭비가 된다는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말려서 퇴비공장으로 보내는데, 여기서도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비닐 한 겹 정도는 기계가 선별할 수 있지만, 여러 겹 쓴 것은 힘들다고 한다. 여름철엔 음식물쓰레기 하루 배출량이 400톤인데, 그 중 비닐만 20톤 정도 된다고 한다. 심지어는 장아찌 담을 때 쓴 돌이나 옷가지들도 음식물 쓰레기에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많단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시민들이 분리를 잘해서 버리지 않으면 고장이 나서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낸 세금을 제대로 쓰게 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면 이런 조그만 규칙은 스스로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덕재(안젤라)  
환경사목회장

### 입당송 시편 88(87),3

주님, 제 기도가 주님 앞까지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짚음에 주님의 귀를 기울이소서.

### 제1독서 마카 7,1-2,9-14

### 화답송 시편 17(16),1,5-6,8과 15(15),1-2

◎ 주님, 제가 깨어날 때 주님 모습으로 흠족하리이다.

### 제2독서 2테살 2,16-3,5

### 복음 환호송 묵시 1,5-7,6-8

◎ 알렐루야.

죽은 이들의 만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비나이다.

◎ 알렐루야.

### 복음 루카 20,27-38(또는 20,27,34-38)

### 영성체송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으려.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도다.





# 평화동 성당 '거룩한 독서' 수료 감사 미사 · 말씀 봉사자 파견식

평화동 성당(주임=문규현 신부)은 지난 11월 3일(토) 오후 6시 지난 3년간 진행해 온 '거룩한 독서' 수료 감사와 새로 시작하는 3년 여정의 '거룩한 독서' 축복 미사를 이병호 주교 주례로 봉헌했다. 3년여의 전 과정을 수료, 신구약 성경을 완독한 기쁨을 나누고 새로운 3년 여정의 110개 팀 110명의 봉사자 파견식 및 장도를 축원하기 위해 가진 이날 미사에서는 3년 개근자 37명, 정근자 26명, 10회 이내 결석자 52명, 완주자 114명 등 229명에게 수료증과 금반지, 성경 봉안포 등을 시상했다.



2005년 3월 50개 팀 400여 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날 현재 39개 팀 245명 중 229명이 성경을 완독하고 수료식을 갖게 되었다.

'거룩한 독서'로 본당의 분위기를 새롭게 변화시킨 평화동 본당은 이를 더욱 확대해 새로 시작되는 여정에는 3년 전의 배인 110개

팀으로 구성해 110명의 봉사자들이 반별, 구역별로 특별한 경우엔 별도의 반으로 팀을 구성 전 신자가 거룩한 독서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미사를 주례한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 말씀을 가슴 속 깊이 담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미사가 생애에서 가장 기쁜 미사 봉헌"이라며 "한 본당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료한 것 자체가 처음 일인데, 다시 110명의 봉사자가 파견되어 3년 과정을 또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치하했다. 이관영 기자

팀으로 구성해 110명의 봉사자들이 반별, 구역별로 특별한 경우엔 별도의 반으로 팀을 구성 전 신자가 거룩한 독서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미사를 주례한 이병호 주교는 강론을 통해 "3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하느님 말씀을 가슴 속 깊이 담기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미사가 생애에서 가장 기쁜 미사 봉헌"이라며 "한 본당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수료한 것 자체가 처음 일인데, 다시 110명의 봉사자가 파견되어 3년 과정을 또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치하했다. 이관영 기자

## ● 애령회 피정

사목국(국장=김진룡 신부)이 주관한 애령회 피정이 지난 11월 3일(토)부터 4일(주일)까지 나바위 피정의 집에서 본당 애령회장과 회원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애령회원으로서의 나'를 주제로 한 피정은 대전 교구 광승룡 신부를 초청 '상장예식의 정신', '애령회원인 나'에 관한 강의, 고해성사, 연도 등으로 첫날 일정을 마치고 둘째날에는 서석희 홍보국장 신부의 영화 '엘리펀트 맨'과 시편 23편을 연계한 강의, 십자가의 길에 이어 파견미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소슬 바람에 낙엽이 지는 호젓한 나바위 성지에서 피정은 죽은 이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죽음을 어

떻게 맞이해야 할지에 대해 묵상케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원엽 기자

## ● 가톨릭문우회 영성강의 및 영상기도

가톨릭 문우회는 지난 11월 3일(토) 김선태 신부(전주 가톨릭 신학원장)를 초청,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라는 주제로 영성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의는 다윗의 일생을 함께 묵상하며 인간 안에 내재한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그 갈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 생각했다. 이어서 영상기도를 통해 지난 일년을 돌아보며 그 안에 살았던 각자 자신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고 각자의 마음에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기자

## 17년 역사 수맥돌침대

- 공장직판 -

(임응승 신부님 수맥지도)

대표 : 이경복 바오로

전주 1588-5335

김장용 국내산 새우젓 각종 젓갈, 소금 식통, 건어물류

## 서해젓집

동부 민물 건강원 (각종 중탕 및 과일즙)

삼천동 농협공판장 내

227-8111 / 011-675-0091

염검제(리디아)

## 김현숙 안과 (전 한양대병원 원장)

안성형수술 (만명이상 경험)

사시 및 소아안과 수술 (0.1mm정밀)

박재용 아우구스티노 / 김현숙 레지나

Tel(063)226-1116

전주시 중화산동 본병원외 건물

3층-진료실, 4층-수술실, 안경원

## 고품격 국제결혼

(베트남 · 필리핀 등) 6개국

이종관(도민고)

☎ 016-9612-9380

(063) 241-9380

- 교우분 특별우대 -

의료법인 영 의료재단(한방·양방 협진)

## 익산효양병원

저렴한 요양비로 어르신들

내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행정실장 송인호(파비아노)

☎ 016-335-8175

상담전화 : (063)858-9998

주소 : 익산시 모현동1가 245-5

## 제주관광안내

제주교구 운전기사 사도회에서는

관광 및 성지를 안내

차량 · 호텔 · 펜션 예약 가능

☎(064)758-6476 H·P 010-4566-6476

## 젼인아트

전진아 (실비아)

한국정부자격보석감정사

미국GIA 다이아몬드 감정자격

미국MV보석평가사 직역

462-7777 www.G1.co.kr

## 스스로한의원

원장 : 송승현(토마), 최윤미(마가베)

적외선체열진단

운동치료 · 체형교정클리닉

☎(063)254-1075

전주 E마트 아외주차장 앞





● '메아리' 중창단 세 번째 음악회



10월의 마지막 밤인 31일(수) 7시 30분 삼성문화회관 소극장 건지 아트홀에서 세 번째 메아리 음악회가 열렸다. 치명자산 성당 주일미사 성가 봉사를 하는 메아리 중창단의 이날 공연은 그레고리안 성가와 국악, 추억의 외국동요, 국내 동요 등 다양한 분야의 곡들로 채워졌으며, 모두 함께 노래를 배우고 불러보는 시간도 마련했다. |김동욱 기자

● 신동 성당 어르신 성경대학 가을소풍

신동 성당(주임=이사정 신부) 어르신 성경대학 어르신들이 지난 11월 1일(목)에 내장산으로 가을소풍을 다녀왔다. 어르신들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의 은총을 듬뿍 느끼며 찬미를 드리고, 기쁨도 한껏 느끼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손희정 기자

● 누갈다 초남이 시집 온 날 행사

'누갈다 초남이 시집 온 날' 기념행사가 지난 10월 30일(화) 오전 10시 30분 생가터와 교리당에서 초남이 성지(담당=김환철 신부) 주관으로 거행됐다.

이병호 주교 주례의 기념미사와 성체거동 및 성체강복, 나눔잔치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유장훈 교구 총대리 몬시뇰, 대전교구 김동익 신부, 광주대교구 김충호 신부 등 사제단과 동정부부의 시복시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은총회와 은사회원 등 3백여 명의 신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미사 중에는 50여 쌍의 부부 참석자들의 혼인서약 갱신식과 이 주교의 안수식 등이 이어졌으며, 미사 후에는 교리당까지 성체거동을 한 후 성체강복과 나눔잔치를 가졌다. |이관영 기자

● 농촌사목 추수감사제

전주교구 농촌사목(전담=송년홍 신부)은 지난 11월 3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치명자산 광장에서 2007년 추수감사제 행사를 열었다. 약 200명의 신자들이 모인 가운데 유장훈 몬시뇰과 교구 사제들의 미사집전과 가톨릭농민회에서 준비한 점심으로 나눔잔치를 한 뒤 생산자들의 생산물을 판매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유장훈 몬시뇰은 강론을 통해 "한 알의 밀알이 썩어 더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도 희생과 봉사와 사랑을 통해서 더욱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격려했다. |홍보국 정례

● 조촌동 성당 제단체 체육대회

조촌동 성당(주임=박병준 신부)은 지난 10월 28일(주일) 미사 후에 성당 쉼터 축성식 및 남성단체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체육대회는 먹을거리 나눔과 함께 족구, 간이농구, 피구, 지구를 옮겨라 등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홍보국 정례

● 위령의 날 합동미사 봉헌

지난 11월 2일(금) 위령의 날을 맞아 치명자산에서 신앙의 선조들과 먼저 세상을 떠난 사제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와 연도가 있었다. 이날 이병호 주교는 로마서 8장을 인용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진통을 겪고 있다"며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 새로운 인간으로 본래의 영광스런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희망한다"는 강론으로 위령성월의 깊은 의미를 강조했다. |홍보국 취재

● 김제지구 3개 성당 합동 위령미사

지난 11월 2일(금) 위령의날에 성당산에서 요촌 성당(주임=박중신신부), 신평 성당(주임=이동신부), 만경 성당(주임=백수현신부) 합동으로 연도와 위령미사를 봉헌했다.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미사를 통해 삶과 죽음은 우리 곁에 가까이 있음을 생각하며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할 지를 묵상해보는 기회가 됐다. |최진순 기자

<p><b>강성호 피부과</b> 강성호(이나시오) 박민정(루비나) ☎(063)255-8700 롯데백화점 옆</p>	<p>수액 · 수세미즘 <b>참살이 수세미 농원</b> 기관지,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 <b>유기농 재배(무농약 인증)</b> 박미나(세실리아) 063)255-8090, 010-6536-1117</p>	<p>- 열심히 사랑합니다 - <b>사랑해한의원</b> 원장 장민호(베드로) 실장 노형근(라파엘) 인후동 위브 어울림아파트 후문앞 문의 : 241-0123</p>	<p>비만, 비염 학습클리닉 <b>지곡 부부 한의원</b> 원장 : 양성봉(가브리엘) 봉광숙(세실리아) 문의 : 063-468-7511 군산시 나운동 롯데 4차 APT 건너편</p>
<p><b>청록 건강원</b> 모든 과일즙과 붕어, 장어, 말뚝, 염소, 인삼 등 송요한 / 최 세실리아 문의 : 284-2316, 016-657-2316 평화동 성당 평화초등학교 사이</p>	<p><b>&lt;악산&gt; 한빛정형외과</b> 패적인 입원실, 물리치료실 원장 : 김선규(라파엘), 이정미(글라리아) - 저녁 8시까지 진료합니다 - ☎ 837-2222~4 (영등동 제일1차 APT옆)</p>	<p><b>갯벌의 산삼 상싱부안 합초</b> 번비, 다이어트, 아토피, 피부미용 관절염, 당뇨, 각종성인병 먹는화장품이라 불리는 미네랄의 보고 무농약 친환경식품 <b>한혜숙(로사리아)</b> 063-582-4602, 011-9643-0031 http://www.singsingkorea.com</p>	<p><b>성지순례</b> 127차 2008년 1월 2일~12일(10박 11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128차 2008년 1월 10일~23일(13박 14일) 이집트, 이스라엘, 이탈리아, 바티칸, 아찌시, 루르드, 프랑스, 파리 2008년 1월 저렴한 경비, 보람된 여정으로 은총속에 출발합니다. <b>전일관광 조선(안토니오)288-6666</b></p>



# 말씀과 기도 안에서

## ♣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찬 도약 준비

삼례는 상큼한 봄의 전령 딸기의 고장이다. 드넓은 평야를 안고 있는 삼례읍에는 북전주지구에 속한 2개의 성당이 있다. 삼례, 상삼례 성당이다. 이번 달 취재를 위해 상삼례 성당을 찾는 길은 꽤 힘들었다. 여러 차례 길을 묻고 해매다가 붉은 벽돌의 성당 건물을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성당에 들어서니 소병길 사목회장과 임원들이 일행을 기다리며 환영해줘 우리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아담한 성당 건물 안에는 계시판이며 군데군데 놓여있는 소품들이 예쁘게 단장한 여인처럼 정성된 손길이 스며있다. 김준호 주임신부는 “우리 본당의 우편물이 상삼례교회로 가거나 삼례성당으로 가는 일이 허다해요. 그만큼 상삼례성당의 인지도가 낮다는 거지요. 이번 취재가 본당을 널리 알리는 데 큰 몫을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상삼례공동체는 모든 이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랑받기를 바라며 지금 힘찬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 화합과 일치에 지나온 여정

인구비례 천주교 신자가 25%를 넘을 정도로 복음화율이 높은 곳이 삼례지역이다. 이같은 현상은 상삼례 성당의 지나온 여정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모 본당인 삼례성당은 1990년 신자 수가 급증하여 본당 분리를 적극 검토하게 된다. 그리고 교우 최병운 형제의 성전 부지 봉헌으로 1992년 상삼례 성당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열악한 조립식 건물로 지어졌기에 성전 건축은 공동체 모두의 염원이었다. 2대 이상섭 신부가 취임하면서 이꿈은 구체화되었다. 이 신부는 L·A교포 사목 전별금을 성전건립 기금으로 봉헌하였고 신자들은 이를 계기로 봉헌금 배가운동을 벌이고 신심을 북돋우며 화합하는 공동체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열기는 3대 한병헌 신부 취임 이래 구체적인 성전 신축 추진계획으로 이어져 1999년 4월 현 위치(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300-6)에 새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다. 특히 사제관과 수녀원은 공사비 부족으로 신자들이 직접 공사를 하였는데 내 집을 짓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았고 공동체는 눈에 띄게 활성화되었다. 연회실 및 장례식장으로 설계된 지하실도 2000년 완공하여 삼례지역 복음화의 큰 기틀이 되었다. 성전 신축을 통하여 신자들은 각자 마음의 성전을 지으며 내적 복음화를 이루었고 1995년에는 봉동 성당을 분가하는 새 지평도 열었다. 지금은 1120명(8개 구역 23개 반)의 공동체로서 일치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 ♣ 신앙의 참 기쁨을 일깨우는 ‘웰빙 성서대학’

작년 8월 본당에 취임한 김 신부는 본당 신자들에게 과연 무엇이 ‘복음’이 되는가를 고민하였다. 본당의 외적인 부분들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어 신자들의 영적성장이 급선무였다. 이는 올봄 문을 연 ‘웰빙 성서대학’과 9월에 시작된 ‘77미사운동’으로 구체화되었다.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웰빙 성서대학’은 성서를 중심으로 한 신자 재교육이다. 지역, 경제여건으로 교구의 여러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위해 사제가 직접 만든 교재로 성서뿐 아니라 교회, 전례, 성사 부분 등 다양한 신앙교육을 펼친다. 사제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성서를 통해 느끼는 하느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신자들은 영적성장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나간다. 신자들은 웰빙 성서대학에 다니면서 성서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왔다고 기뻐한다. 본당에



#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서는 또한 금년 9월~12월 말까지 신자 개인이 77번 평일 미사에 참여하는 '77미사운동'을 펼치고 있다. 교회는 완전한 숫자 77을 통하여 신자들의 신앙이 주님께 올린 하기를 바라고 있다. 신자들은 본당 공동체와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기도의 영적 선물을 주고받는다. 성당 입구에는 예쁜 기도 우체통을 설치하고 기도가 필요한 신자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청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전 방위로 신자들의 영적 삶에 파고들다 보니 냉담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평일미사 참여자 수가 3배가량 늘었다고 한다. 김 신부는 본당 사목지침에 잘 협조하는 신자들의 깊은 신심을 칭찬하며 흐뭇해한다.

## ♣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온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

도심 외곽본당이며 영세 후 10년 미만 신자들이 80~90%임에도 봉헌과 나눔의 정신이 뛰어난 상삼레공동체. 본당은 신앙을 키워 온 큰 기둥으로 셋별 꾸리아 산하 21개 프레스디움을 꼽는다. 레지오 단원들의 활발한 선교활동은 농촌의 광범위한 지역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1992~96년에 289명, 1997~2004년에는 258명을 영세시켜 성모님의 군대로써 하느님나라 확장에 큰 기여를 하였다. 또한 99년엔 선교가 본당의 중점사목방향으로 정해지면서 꾸리아를 중심으로 선교에 박차를 가한 결과 2000년 교구로부터 우수 꾸리아 표창을 받기도 했다. 2001년 10월엔 상삼레 선교단을 발족하여 1인1명 이상의 쉬는 교우 및 예비신자를 확보하도록 격려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좋은 선교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또한 본당에는 봉사의 주축이 되어 쌍두마차 역할을 하는 젊은 두 단체가 있다. 40세를 전후한 남성, 여성 신자로 구성된 '다미안회'와 '아가페회'이다. 두 단체는 본당 일에 대내외적으로 적극 협조함으로써 본당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노력

넓은 지역의 분포로 인해 어려움이 많은 본당은 구역 활성화의 숙제를 안고 있다. 본당은 지난 10월 본당의 날 '대 운동회'에 구역별로 음식을 준비하여 서로 나누는 풍성한 잔치를 개최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신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줌으로써 사귀의 장을 마련하였고 구역 형제자매들의 결속도 강화하였다. 또한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본당은 구역활성화를 위해 우선 잘 모이는 구역을 중심으로 복음 나누기를 적극 권장하며 분포도가 넓은 구역은 소그룹으로 기도모임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두 번의 바자회를 통해 성전건축에 함께해준 지역주민들에게 심터를 제공하는 공간의 활용도 과제이다. 또한 성당 내에 공원녹지를 마련하여 야외영화를 상영하고 14처를 조성하여 자연스럽게 지역민과 함께하려는 계획을 조심스레 세우고 있다. 교회와 지역이 서로 소통하고 사랑을 나누는 상삼레공동체 안에서 지역의 빛이 되는 희망을 바라본다.

취재 : 신현숙 · 오안라 기자, 사진 : 김영수 기자





## 살아 있는 이들이 연옥영혼 위해 바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죽은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봉헌하는 미사. 교회가 죽은 이를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이 상호간에 영성적인 도움을 주며 다른 지체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 교회가 죽은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미사가 위령미사이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원의 잔치에 초대받았다. 그러므로 산 이도 죽은 이도 모두 이 공동체의 일원이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산 이와 죽은 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통교를 이룬다. 그러므로 위령 미사는 아직 살아 있는 이들이 먼저 죽은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그리스도와 함께 봉헌하는 것이다. 미사는 파스카의 잔치이다. 이 파스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아들 그리스도를 희생하는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다.

미사를 통해 산 이와 죽은 이를 파스카의 영원성으로 초대하는 분이 하느님이시기에, 산 이들이 봉헌하는 위령 미사는 죽은 이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사가 되는 것이다.

하느님은 스스로 마련하신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에서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의 협조를 통하여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한다. 살아 있는 동안 하느님을 믿으며 세례를 통해 새로이 태어났으나 나약함으로 인하여 세례 후에도 여전히 죄에 물든 채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다. 비록 이 죄를 씻지 못하고 죽었을 때도 하



치명자산 성직자 묘

느님은 여전히 구원의 팔을 펼치시며 모든 이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신다. 세상을 떠났기에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옥 영혼을 위해, 살아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것이 위령 미사인 것이다.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 교회는 매년 11월을 위령 성월로 정하였다. 11월은 세상을 떠난 부모나 친지의 영혼,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을 바치며, 자신의 죽음도 묵상해 보는 특별한 신심의 달이 되었다. 특히 지구 북반구에 위치한 나라들은 11월에는 낙엽이 지며 가을의 복판에 있게 된다. 또한 전례력으로도 연중 마지막 시기에 속함으로써 종말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미사 중에 듣게 된다. 이런 이유로 위령 성월은 죽은 이를 기억하기에 적합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때라고 하겠다.

살아 있는 이들이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 기도가 죽은 이에게 도움이 된다는 교회의 전통 교리가 위령 성월을 지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가톨릭 대사전 발췌>



#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



〈사진 | 홍보국 제공〉

행복하여라, 그 길이 온전한 이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이들!  
 행복하여라, 그분의 법을 따르는 이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찾는 이들!  
 불의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분의 길을 걷는 이들!

당신께서는 규정을 내리시어  
 열심히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 당신 법령을 지킬수 있도록  
 저의 길이 굳건하였으면!  
 그러면 당신의 모든 계명을 바라보며  
 제가 부끄럽지 않으리이다.  
 제가 의로운 법규를 배울 때에  
 당신을 올곧은 마음으로 찬송하오리다.

〈시편 119, 1-7〉



**교구장 일정**

- **한일 주교 교류모임**  
11월 13일(화)~16일(금)
- **군산 장애인복지관 감사나눔잔치**  
11월 17(토) 오전 11시
- **견진**  
11월 18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출포

**미사·행사·모임**

- **가정성화 미사**  
11월 12일(월) 오전 11시 치명자산성당
- **M.B.W. 콘비벤자**  
11월 12일(월) 오후 7시 센터
- **교구 사회복지위원회 사랑의 다리 군산 월례미사**  
11월 12일(월)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 **재무평의회**  
11월 14일(수) 오후 2시 교구청
- **사제아버지회 월례회의**  
11월 15일(목) 오전 11시 초남이
- **교구 꾸르실로 총회**  
11월 17일(토)~18일(주일) 천호
- **익산 하나회 미사**  
11월 18일(주일) 오후 2시 부송동
- **군산 장애인종합복지관 7주년 감사나눔잔치**  
11월 17일(토)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 **2007년도 가정성화를 위한 계절강좌(4차)**  
11월 27일, 12월 4일,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센터 3층 회의실  
대상: 일반 신자  
주제: 학교폭력과 우리아이 이해하기  
11월 27일: 학교 현장에서 자녀들의 삶에 대한 이해  
12월 4일: 학교폭력의 징후, 이렇게 포착하라  
12월 11일: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강사: 김영태 신부(성심여고 종교감) 홍경숙 선생(전북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사무국장)  
참가비: 1인당 3만원  
신청 및 문의: 285-0041  
FAX: 285-0049  
\* 개별적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사목국 홈페이지(jjsamok.com)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FAX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 **바른 식생활 강연**  
제목: 생명을 지키는 밥상  
강사: 김수현 약사  
(‘밥상을 다시 차리자’ 저자)  
일시: 11월 21일(수) 오후 2시~4시  
(4시 이후 환경미사)  
장소: 구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교육·피정·연수**

- **함께하는 여정 봉사자 교육 3단계**  
11월 13일(화) 오후 2시 삼천동
- **새 사제 연수**  
11월 15일(목) 오전 10시 센터
- **교3 수험생 부모님 피정**  
11월 15일(목) 오전 10시 해월리 피정의집  
신청: 285-0041, 011-9123-0811  
010-6625-3613 교육국
- **2008년도 제5기 가정상담 봉사자 학교 기간:**  
1학기 2008년 3월 6일~6월 26일  
2학기 2008년 9월 4일~12월 11일  
매주 목 오후 2시~4시 30분 총 75시간  
장소: 새교구청 4층 강당  
대상:  
· 교구 가정상담 봉사자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  
·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대인관계 향상을 원하시는 분  
· 가족이해를 통해 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으신 분  
· 자기 성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  
· 본당에서 아동, 청소년 교리교사 및 가정사목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  
접수마감: 2008년 1월 31일  
수강료: 매 학기 12만원  
문의 및 접수: 가정사목부 285-0041  
가정사목 신부 김정민 016-654-2439  
신청: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0-6  
천주교 전주교구 가정사목부  
가정상담봉사자학교 담당자 앞  
입금계좌: 전북은 505-13-0312074  
천주교 유지재단  
신청서 배부:  
1) 전주교구 사목국 홈페이지  
2) 본당 사무실에서 신청서를 복사
- **엠마오 관상 기도 피정**  
11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우아  
문의: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천호 피정**  
11월 15일(목) 오전 10시
- **교구기재단 6기 교육**  
11월 18일(주일) 오전 9시 30분  
장소: 센터 / 미사 있음
- **전국 청년성서 지도신부, 수녀모임**  
11월 17일(토)~18일(주일)

**기타**

- **전주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원서교부및 접수: 11월 30일까지  
(선착순 마감)  
대상:  
만5세: 2002~3.1~2002.12.31.  
만4세: 2003.1.1.~2003.12.31.  
만3세: 2004.1.1.~2004.12.31.  
제출서류: 등본 1통, 증명사진 2장  
문의: 252-0384(종일반 운영)
- **2008학년도 성심유치원 입학안내**  
원서교부: 11월 3일(토)~11월 17일(토)  
원서접수: 11월 17일(토)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장소: 전동 성당 내 성심유치원  
대상: 만4세(2003년 3월~2004년 2월)  
만3세(2004년 3월~2005년 2월)  
문의: 284-8347, 011-9646-8347  
\* 2008학년도부터 인후, 아중지역 차량가능
- **평화방송 특별기획드라마-강원속(3부작)**  
11월 20일부터 3주간 방영  
시간: 화-16:00, 수-23:00,  
목-11:00, 금-21:00, 토-16:00, 일-20:00  
문의: 02-2270-2615

새 가톨릭센터  
특별 신축헌금(10/28~11/3)  
천천자(1,000,000)



‘쌍백합’ 정기구독자와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계좌번호: 전북은행  
505-13-0313012 천주교유지재단  
★ 쌍백합 전면에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홍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서울 성가소비녀회  
성소모임**

일시: 셋째주일 오후 3시  
장소: 효자동 성당 수녀원  
문의: 063-223-3822

**프란치스코 의료봉사 수녀회  
겨울성소피정**

일시: 12월 31일~2008년 1월 2일(2박 3일)  
장소: 전남 장성 수녀원  
대상: 만 35세 미만의 젊은 미혼 여성  
준비물: 세면도구, 필기도구, 목주 / 참가비: 없음  
신청 및 문의: 02-723-1615(서울 본원)  
010-3759-8226, 017-552-1114

**메주고리아 9박 10일  
순례단 모집**

송년-2008년 새해를 주님과 성모님과 함께,  
최저의 경비로, 최고의 축복을!  
일시: 12월 27일~2008년 1월 5일까지  
경비: 258만원 / 문의: 017-744-3292

가톨릭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운영 명문대학  
**필리핀 세부 산호세대학교  
영어캠프 학생모집**

• 대상: 초, 중, 고 대학생(레벨만 편성)  
• 12월 20일, 27일 출발(9주, 8주, 6주, 4주)  
• 수학, 논술, 골프수업 등 특성과  
프로그램 병행  
• 문의: 02-735-8840  
산호세대학교 서울 사무소



# 임순남 · 무진장 지구 본당 소식

##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김 의 태  
F A X: 633-0081 수녀원: 635-0091 서목회장: 마 일 호

- ◎ 금주 계약성경 쓰기: 욥기 15장 17절~20장 13절
- ◎ 수고하셨습니다! 제 7대 사목회(회장 김기창 필립보)  
※ 수고하시겠습니까! 제 8대 사목회(회장 하일호 라파엘)
- 1. 오늘: 제 8대 사목회 임원 선서식 및 임명장 수여식
- 2. 금주 ① 안수녀님 휴가 12일(월)~16일(금) 기도 부탁드립니다.  
② 마리아세례회 13일(화) ③ 8대 첫사목회 14일(수) 후 8시  
④ 전례분과 모임 15일(목) ⑤ 제대회 16일(금) 후 2시
- 3. 2008년도 첫영성체 대상자 교리 신청 접수: 작은 수녀님
- 4. 감사헌금: 오애순 10만, 소재영 10만, 신철아 5만
- 5. 성전신축금: 이경옥 100만, 적금만기(이덕희, 김인순 각 200만)
- 6. 차주 ①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② 대건회 ③ 아가페회 ④ 안나회  
■ 지난주 봉헌금: 870,700원 ■ 교무금: 1,680,000원

## 무 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이 상 윤  
유 거 월: 324-3555 수녀원: 322-2399 서목회장: 김 원 태

- ◎ 성서읽기: 11월 둘째주 에제키엘서 15장~21장
- ◎ 추수감사미사: 교중미사중
- ◎ 교중미사 후 팔복성당 신축기금마련 나눔잔치(짜장면)가 있습니다
- ◎ 성지순례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성당청소: 11월17일(토)-윤교, 죽산반
- 1. 모임 ① 올드레야. 반장모임-교중미사 후  
② 성체조배회-11월16일(금) 전10시 미사 후
- 2. 금주전례: 해설-서정분. 독서-문학철, 박신언. 봉헌-박희완부부
- 3. 차주전례: 해설-임미예. 독서-최우림 부부. 봉헌-윤오성, 변점례  
■ 지난주 봉헌금: 372,000원

## 순 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송 호 석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서목회장: 정 윤 열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6521004>

- ◎ 어린이 은총시장에 협조하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다음 주일은 평신도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1. 금주모임: 여성분과, 올드레야-미사 후
- 2. 차주모임 ① 테레사회, 요세희, 대건회-미사 후  
② 성모회-21(수)미사 후
- 3. 청소: 금주-파티마의 모후, 차주-착한의견의 어머니
- 4. 차량봉사: 김진한 김희중, 차주-오용호 정준일
- 5. 감사헌금: 익명-감사합니다.
- 6. 전입을 환영 합니다. 김영임(현희 마리아)  
■ 지난주 봉헌금: 872,400원 ■ 교무금: 1,653,000원

##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 성 팔  
유 거 월: 633-4005 수녀원: 626-1004 서목회장: 양 영 순  
홈페이지: <http://www.ssangkyo.org>

- ◎ 하느님께서는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디(루카 20, 38)
- ◎ 위령성월을 맞이하여 연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 ◎ 장례용품(운구거, 관포 등) 구입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예비자 교리반: 매주 일 오전 9시 30분 - 한 사람씩 인도바랍니다.
- 2. 2008학년도 소화유치원 신입생 모집 지원자격:  
2003년 3월 1일생~2005년 2월 29일생  
※ 원서교부: 2007년 11월 17일(토) 오전 10시, 선착순.
- 3. 병자봉성체: 15일(목) 후 2시부터,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4. 센터 신축헌금 신입액: 163,348,000원, 납입액-139,467,000원
- 5. 감사헌금: 정주영 5만, 이순덕 10만, 익명 10만
- 6. 다음주일(18일)은 평신도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1,763,800원 ■ 교무금: 4,207,000원

## 진 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주임신부: 정 신 수  
F A X: 433-7599 수녀원: 433-1531 서목회장: 구 동 수  
연동공소: 433-3177 유 거 월: 433-2293

- 1. 금주 ① 10일(토) 전11시부터 주일학교 은총시장, 후7시 예비자면담  
② 11일(일) 미사 후 꾸리아-단장선거, 이명서 베드로회, 예비자 피정  
③ 13일(화) 전9시 오아 가정방문  
④ 15일(목) 전9시 마령, 판치, 한들(부곡) 가정방문  
⑤ 17일(토) 미사후 만나회, 어은동미사 후7:00
- 2. 차주 ① 18일(평신도주일) 2차헌금, 추수감사제 및 만남의날-봉사 한들지역

※ 인터넷 주소창에 교구나 성당 이름만 치세요! 예) <http://전주교구> 또는 <http://순창성당>

## 오 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서 광 석  
F A X: 642-6319 서목회장: 변 홍 섭

- 1. 본당발전과 선교활성화를 위한 묵주기도 누계: 213,600단
- 2. 성서를 통독 합니다.
- 3. 예비자 교리 신청 받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4. 금주전례: 해설 - 문정희, 독서 - 변홍섭, 이영자
- 5. 차량봉사: 변홍섭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6. 차주전례: 해설 - 조경희, 독서 - 황일주, 신광일
- 7. 차량봉사: 이기를 형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임 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박 중 훈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서목회장: 노 제 진

- ◎ 오늘은 만남주일이며 교무금, 성소후원금 봉헌의 날입니다.
- 1. 공소미사: 삼길-18(일)후, 7시
- 2. 연도대회: 14일(수)후, 7시30분-구역별
- 3. 구역모임 ① 15일(목)-임2,5 ② 16일(금)-임4 ③ 17일(토)-임1,3,6
- 4. 감사헌금: 문명숙 5만원, 최명규 20만원, 박정 10만원
- 5. 50주년 기금: 하영자 50만원, 한중식(분도) 10만원, 누계-81,644,131원
- 6. 청소년 담당구역 ① 오늘-성수 ② 16일(금)-임실2,4 ③ 18일(일)-신평
- 7. 차주전례 ① 해설-이원섭 ② 독서-최종일 부부 ③ 봉헌-최명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895,500원 ■ 교무금: 634,000원

## 장 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임 기 봉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서목회장: 이 상 화

- ◎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 1. 성체강복: 15일(목) 저녁미사중
- 2. 팔복성당 신축을 위한 자장면 바자회: 18일 교중미사 후  
※ 교목관에서 맛있는 자장면 파티가 있습니다.
- 3. 구역장 모임: 18일 금주미사 후 교육관  
※ 각 구역장님들과 공소회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정보통신교육교육생 모집: 회비 10,000원(교재비, 간식비 포함)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또는 이봉우 강사(010-9866-0780)
- 5. 가정방문: 매주 수요일 오후
- 6. 금주모임: 사목회 - 15일(목)
- 7. 전례봉사 ① 금주-하묘순, 양승현, 이현숙, 김주영, 심현천  
차주-김효상, 심현천, 송정례, 이봉희, 우연태  
■ 지난주 봉헌금: 573,600원 ■ 교무금: 280,000원

## 장 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정 진 봉  
F A X: 351-5226 수녀원: 351-1228 서목회장: 박 동 표

- ◎ 지난주 추수감사미사와 팔복성당 기금마련 행사에 수고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1. 차주공소미사: 상동
- 2. 금주참여공소: 번암, 차주-수분
- 3. 금주전례: 장요섭, 차주-이유미
- 4. 금주독서: 정연수, 최선형, 차주-장양섭, 임진숙
- 5. 금주봉헌: 장재주, 최인주, 차주-이승하, 이옥주
- 6. 금주차량봉사: 박충기, 차주-이지수
- 7. 감사헌금: 2,126,000원  
■ 지난주 봉헌금: 492,500원 ■ 교무금: 410,000원

- ② 19일(월) 전9시 구복산 산행
- ③ 20일(화) 전9시부터 상건, 용담 가정방문, 전10시 성모회
- ④ 22일(목) 전9시부터 정천, 주천 가정방문
- ⑤ 24일(토) 미사후 예비자 세례식 연습
- 지난주 봉헌금: 972,000원 ■ 교무금: 3,180,000원



## 신과 인간의 합일,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일찍이 장자는 ‘言者所以在意，得意而忘言 (언자소이 재의, 득의이망언)’ 이라 했던가! 즉, “우리 인간의 말이라는 것은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뜻을 얻게 되면 말은 버려야 한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태, 그 분위기와 느낌만으로도 그 깊고 깊은 의미를 충분히 알아 듣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닐까? 그레고리안 성가에는 <멜리σμα (melisma)>라는 독특한 선율법이 있다. 특별히 미사 중에 부르는 ‘알렐루야’의 끝음절 ‘야..’에서 여러 개의 음표가 붙게 되어 길게 이어지는데, 그 음표마저도 더 이상

은 필요가 없어지는 음의 초월 상태로 이어진다. 마치도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초월의 경지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승리의 기쁨에 대한 환호와 절정’은 인간의 언어와 기교를 벗어나는 영적인 단계로, 바로 이 부분에서 부르는 사람의

진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음표마저도 더 이상은 필요가 없어지는 음의 초월상태’,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신과 인간의 만남과 일치에서 오는 충만함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아무 것도 필요 없이 그저 일치 자체라는 그 분위기와 느낌으로 신을 체험하는 은총의 순간이다. 그렇게 신을 연주했던 루드비히 베토벤의 생애를 조명한 영화, <카핑 베토벤 (Copying Beethoven, 2006)> 금년도 가을, 극장가를 장식했다. 영화는 1824년 비엔나를 배경으로 교향곡 중에 최고라고 손꼽히는 <베토벤 교향곡 9번, Ode to Joy>의 초연을 앞둔 시기부터 베토벤이 죽음을 통해 신의 품에 안기기까지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영화는 위대한 베토벤 교향곡 9번의 초연에 포커스를 두고, 베

토벤이 처한 현실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그의 음악이 얼마나 신과 인간의 만남을 시도로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공기의 떨림은 인간의 영혼에 얘기하는 신의 숨결이야, 음악은 신의 언어야**”라고 말하는 베토벤은 혼신의 힘을 다해 9번 교향곡을 작곡한다. 그는 귀까지 멀었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목 주변에 철판을 두르고 그 파동에 의지에 작곡을 한다. 귀에는 깔때기 같은 커다란 보청기를 끼고, 얼굴을 봐야만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음악은 신을 향한 끊임없는 신음이고, 갈망이며, 만남을 위한 시도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통해 완성된 9번 교향곡의 초연을 통해, 세상을 창조한 신의 처절한 노력에 그가 동참하고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9번 교향곡 4악장에서, 일제히 신을 향해 환성을 지르는 합창의 물결 속에 동화되고 감동하게 된다. 바로 9번 교향곡은 신의 창조와 섭리의 뜻을 헤아리고, 거기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자 환호인 것이다. 9번 교향곡에서 합창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은 더 이상 언어로도 표현되지 않는 신과 인간의 만남의 영역이다. ‘멜리σμα’적이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신과 인간의 만남을 보여주는 9번 교향곡의 절정을 영화는 잘 드러내주고 있다.

마치도 영화 속의 베토벤이 말한대로, “**구름이 열리고 사랑의 손이 아래로 내려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올린다. 첼로는 땅에 남고, 나머지 바이올린들은 날아오르지. 잠시동안...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거야. 땅은 존재하지 않고 시간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을 들어올린 손이 얼굴을 어루만져 하느님의 얼굴을 본뜬다. 그리고 하나가 돼. 평화롭게 말이야. 드디어 자유로워 지지.**”

영화, <카핑 베토벤 (Copying Beethoven, 2006)>의 스토리는 단순하다. 영화의 시작과 끝은 베토벤의 악보를 카피해주는 안나 홀츠라는 여인과 베토벤의 만남을 축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극영화를 이끌어가는 최소한의 소재일 뿐, 영화의 실제 이야기는 베토벤 9번 교향곡과 베토벤이 추구하는 음악세계이다. 단지 음악을 듣고, 베토벤의 음악을 느끼는 것 자체로도 이 영화는 듣는 기쁨을 줄 뿐 아니라, 신을 향한 한 위대한 음악가의 신앙고백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은총의 시간을 느끼게 한다.

<서석희 홍보국장 신부>

